

법대 박순근 강사 사건 일지

2003.5.10~

※ 5월 10일 성폭력적 발언 사례 접수

5/18(일)	19	20	21	22 교수성폭력 토론회	23 한겨레신문에 토론회 관련 기사 나감	24
25	26 박순근 강사 입장을 부 착	27	28	29	30	31
6/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003.4.30 교수성폭력 토론회 준비를 위해 사례 수집

성폭력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수업 만들기

수업시간에 듣게 되는 불쾌한 얘기들...
분위기를 좋게 한다면, 또는 수업 이해를 돕는다면, 혹은 아무 상관없이 내뱉는 말들...

여성은 집에나 있어야 한다나,
어차피 '시집'이나 갈 여학생이 점점 늘어나서 걱정이라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불편하게' 노골적인 얘기들..
심지어 교재가 비싸면 남학생들은 막노동하고, 여학생들은 자기한테 찾아와서 몸을 팔라는 이야기까지...

강단에 선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학생이기에 그냥 웃어넘기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벌어지는 성폭력적인 언어에 대한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5월 27일에 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적 발언들에 대한 사례 신고를 받습니다.

* 사례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사용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몇 년도 몇 학기 어떤 수업이었던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feminist@yonsei.ac.kr 또는
언니네(www.unninet.co.kr) 연세 교수 성폭력 사례집 커뮤니티(익명게시판)

일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성주의 일/파/만/파 15대 총여학생회 www.yonsei.ac.kr/~ysfem

2003.5.10 언니네 <연세 교수 성폭력 사례집> 커뮤니티에 박순근 강사의 발언이 신고됨

법과대학 2002-2학기 헌법(2)

박순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학기 강의때였던 거 같은데, 첫시간에 교재에 관한 설명이 있었더랬죠.
자신이 쓴 헌법 강의라는 책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에 이 책의 구입을 위해 돈이 모자랄 경우에.. 남자애들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든 되
고.. 여자애들은 몸팔면 된다는 말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 이거 또 여자애들이 성희롱이니 머니 하면서 그러는데, 그런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라구" 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죠..
원래 그 분이 격의 없는 농담을 좋아하는 분이라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되곤 하지만, 그 중간 중간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종종 성폭
력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아마 법대 사람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말과 함께~

아무리 자기가 성희롱적인, 혹은 성폭력적인 의도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을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 아닐까 합니다.

2003.5.22(목)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 교수성폭력 토론회' 개최(주최: 총여학생회)

[사례 8] 2002년 2학기 법과대학 헌법(2) 첫 시간에 K교수가 수업 교재인 '헌법 강의'라는 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남자에게들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자애들은 몸을 팔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덧붙여 "아~ 이거 또 여자애들이 성희롱이니 뭐니 하면서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라구."라고까지 하였다.

(.....중략.....)

사례 8에서 나타난 교수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교수에게 남학생은 막노동할 수 있는 사람, 즉 육체적 '힘'을 가진 사람으로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노동을 함으로써 책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은 다르다. '여자애들은 몸을 팔면 된다'는 말에는 모든 여성들을 '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 성적 대상으로서만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특히나 이 교수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들으라구."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는 한편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성폭력의 판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루어져야지,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은 성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다.

* 박순근 강사의 수업중 발언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수업시간에 발생한 성폭력적·성차별적 발언 사례 정리' 부분에 사례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2003.5.23(금) 한겨레신문 기사

"교재 살 돈 없으면 몸 팔면 된다"

연세대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 교수들의 성차별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22일 오후 6시 연세대 외솔관에 '교수 성폭력토론회'를 열고 교수들의 성차별 발언들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사례로는 "교재를 구입할 돈이 모자라면 남자들은 막노동판에 나가면 되고, 여자애들은 몸을 팔면 된다"(법대), "오늘 0양이 발표를 위해치마까지 입었군요.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하기 때문에 다리도 예뻐야한다"(생활과학대), "여자들이 대학에 다니는 것은 현모양처가 되기 위한 교양을 쌓기 위해서고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다. 여자들은 삼중 지도를 해야 한다. 페미니스트들도 여기 있겠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문과대) 등이다. 또 "(칠거리악을 설명하면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쫓겨나야한다"(교양한문), "여학생이 재학중에 시집가면 에이(A) 학점, 졸업 후 바로시집가면 비(B), 졸업 후 취직 하면 시(C), 대학원에 가면 에프(F)다"(문과대) 등 모두 20건의 발언이 소개됐다. 총여학생회는 교수들의 성차별 발언 대처법으로 △현장에서 문제제기 △수업 뒤찾아가거나 이메일로 문제제기 △총여학생회 신고 △학내 성폭력상담실 신고 등을 제시했다.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의 성폭력·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지는데 교수들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모든 교수님께 편지형식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강김아리 기자ari@hani.co.kr

*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취재했던 한겨레신문에 박순근 강사의 발언이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다.

2003.5.26(월) 법대 게시판에 부착된 박순근 강사의 입장글(A4 네장) 확인

누가 여성 해방의 결립돌인가?

2003년 5월 23일 한겨레신문에는 연세대학교와 관련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학 사회에서 교수의 강의 중 성폭력적 언어에 대한 것이며 그 중 하나가 "돈이 없는 여학생들은 몸을 팔아서 책을 사서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의 중 그 발언을 하였던 헌법 담당 강사 박순근입니다. 그와 관련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헌법학과 노예제도

헌법이란 국가 조직법을 달리 부르는 말이며, 헌법학은 정치학과는 달리 국가의 이념적 구조나 그 운영 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근대 국가를 만들어 냈으며 그 이념의 근저에는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헌법학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 현상으로 늘 곁에 두고 있는 국가라는 제도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필요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삶의 약속에 불과하다. 그러한 국가라는 제도 저편에는 먼저 기득권을 얻은 자가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 재생산하려는 이념화된 허위 의식이 자리잡고 있으며, 헌법학은 그러한 허위 의식을 분석하고 알려주는 것을 주된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한 무수히 많은 현존하는 제도 중 가장 큰 모순을 갖는 제도 중의 하나가 바로 노예 제도이다. 박순근의 헌법 강의는 그 노예 제도를 분석하고 알려주어 역사의 유물로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득권의 유지 및 재생산의 도구로써의 국가는 역사상 무수히 많은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노예

제도를 만들어 왔는 바, 특히 시민 혁명의 역사를 갖지 못한 우리 사회는 현재도 많은 사실상의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 대표적인 노예 제도는 여성 노예 제도, 대학 강사 노예 제도, 지방대 노예 제도, 전라도 노예 제도 등이다. 그 중 전라도 노예 제도는 이제 각고의 세월 끝에 급속히 없어지고 있는 제도임에 반하여, 나머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우리 사회에서 여자나 지방대 출신이나 대학 강사는 인간의 저편에 놓여있는 다른 가치를 가진 한낱 수단에 불과하다. 그들이 있어 사람이며 주인인 남성이나 (지방대가 아닌) 서울대 출신이나 대학의 전임 교수들은 매우 행복하다. 그 결과 노예 제도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대 이상의 많은 기쁨을 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그러한 노예 제도를 볼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길목에 서 있다. 박순근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다.

2. 성 노예 제도와 병아리 감별사

역사상 가장 먼저 출현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는 노예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과 노예를 구별하는 제도이며, 이를 우리는 달리 성차별이라 부른다. 성 노예 제도가 있는 곳에는 사람인 남성과 노예인 암컷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의 출생시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일이 남성인가 아니면 암컷인가를 감별하는 일이다. 암컷이면 그냥 죽여도 좋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마치 감별사의 손에 맡겨진 병아리의 가치로 전락한다. 박순근의 헌법 강의는 이를 부인하며, 사람은 그 암수나 출생지역 및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을 중심 테마로 하며, 이는 수업 시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3.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몸을 판다

자본을 통하여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로 출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예외없이 몸을 판다. 누구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중 힘없는 자들은 힘있는 자들을 도덕적으로 더럽다는 평가와 함께 어떤 매춘은 형벌로 처벌하기까지 한다. 힘있는 자들의 허위 의식에 돌팔매를 맞아 죽는 자들이 있어 기득권자들의 허위 의식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박순근은 그 점을 말하고 싶었으며, 이는 “몸을 팔아서라도 책은 사 봐야 한다”, “사람을 암수로 구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성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사회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매춘도 합법적 직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로 수업 중 표현되고 있다. 박순근이 헌법 수업을 하는 한 그러한 표현은 없어지지 않는다.

4. 다들 옷을 벗어버리면 어떨까?

여성을 남성의 성적 및 사회적 노예로 전락하게 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가 바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성 도덕이다. 처음부터 성 도덕은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마치 간통죄의 처벌 대상이 처음에는 여성으로 한정되었듯이. 그러므로 성차별의 극복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며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성 도덕이나 성 관습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박순근은 수업 중 “같이 옷을 벗어 봅시다”라고 거듭 제안한다. 여자에게만 강조되는 옷이라는 강요된 도덕이나 관습은 성 노예 제도를 유지시키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수업 중에 그러한 표현을 들어 여성 비하적이라 한다면 과연 누가 여성 해방의 걸림돌이며, 누구의 편에 서서 성 도덕과 사회 제도를 보는지 거듭 물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혹시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오랜 동안 노예 교육을 받아 왔으므로 주인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몸 아저씨’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인 것이다.

5. 연세대학교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

기독교 정신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세대학교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담배를 팔지 않는다. 그래서 대학 깊숙이서 공부하던 애연가들은 가끔씩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박순근은 언젠가 후배 여학생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일로 정식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어떻게 여학생에게 그러한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냐고...그러나 박순근은 그 후배가 다행히 교문 밖에 있었고 연락이 되어서 부탁했을 뿐이지 ‘여학생’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킨 바는 없다. 담배 심부름은 성인끼리이면 서로가 편의에 의해 부탁하고 또 가능하면 서로 편의에 따라 상호 심부름을 해 주는 것이지, 남성과 여성, 교수와 학생을 나누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된다는 식의 가치 판단은 지난날 여성을 노예로 보았던 제도의 유물에 불과하다. 노예들이 노예 해방을 가장 반대한다. 노예로 길들여져 있으므로. 박순근은 그동안 여학생들의 담배 심부름을 무수히 한 바 있으며, 또 하고 있다.

6. 누가 여성 해방의 걸림돌인가?

여성을 남성과는 다른 개체로 보고 언제나 다른 시각으로, 다른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여성 비하적인 것이며, 여성은 전략적,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사고 역시 여성 비하적인 것이다.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남성과 여성이 적으로 대립함을 전제로 하여 접근하는 자체가 아직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미성숙한 사회 의식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남성과 여성은 단지 성격 기능이 다를 뿐, 나머지는 어느 것도 다르지 않다. 아니, 다르다고 강조할 부분도 아니다. 그것 역시 노예 제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단지, 이를 어떻게 생활화할 것인가가 문제일 뿐이다.

7. 강의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는 곳이다.

지난날 암울했던 독재 정권의 시대에는 강의실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의실 밖에서 책임을 물었던 때가 있었다. 강의실은 학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곳으로 100%에 가까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 영역이다. 혹 생각이 다르면 바로 그런 서로의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곳이 강의실이다. 누구도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그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부당히 언로를 막아서도 안 되듯이, 그가 교수라는 이유로, 그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각의 자유를 막아서도 안 되듯이, 그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걸 막아서도 안 된다. 뭐는 안 되고 뭐는 된다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건 이미 정치의 장이지 학문이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8. 학생이 없는 곳에 교수는 없다.

관객이 없이 배우가 있을 수 없듯이, 학생이 없이 교수가 있을 수가 없다. 학문의 주체는 교수일 수 있으나, 강의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생이 강의의 주체라 하여 수업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박순근의 헌법 수업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연세대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순근의 수업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다행 중 다행히도 박순근은 현재 적어도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사회의 또다른 노예의 하나인 강사로 있다. 여성 해방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자르면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 사회에서 강사는 자를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이다. 그냥 다음 학기에 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특히 박순근은 현재 법대 헌법 교수 공채에 응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가 있

으면 이 기회에 제거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노예들이 노예 해방의 가장 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연세대학은 연세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권은 연세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 연세인들은 결정해야 한다.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한다. 헌법 담당 강사 박순근을 '선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폭력적 언어나 일삼는 미성숙한 의견적 지식인으로 볼 것인지를...그 결정 내용을 급히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연세인의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 다음 학기에 부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스스로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 생각한다.

2003. 5. 23.

연세대 법대 헌법 담당 강사

박순근 드림

* 박순근 강사는 문제의 발언을 자신이 한 것이라고 학내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총여학생회에서는 이 게시물을 26일 발견하여 기록하였다.) 박순근 강사는 이 글을 수정되어 한겨레 신문에 올린다. 그리고 다음날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기사로 나간다.

2003.5.27(화) 한겨레신문 <왜냐면>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

5월23일치 <한겨레>에는 연세대학교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대학사회에서 교수의 강의 중 성폭력적 언어에 대한 것인데, 그 중 하나가 “돈이 없는 여학생들은 몸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서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강의 중 그 발언을 하였던 헌법담당 강사 박순근이다. 그와 관련된 생각을 밝힌다.

I. 헌법학과 노예제도

헌법이란 ‘국가조직법’을 달리 부르는 말이며, 국가의 이념적 구조나 그 운영원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기득권의 유지 및 재생산 도구로서 국가는 역사상 무수히 많은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순을 낳은 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예제도다. 역사상 가장 먼저 출현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는 노예제도의 하나가 바로 성을 기준으로 하여 사람과 노예를 구별하는 제도이며, 이를 우리는 달리 성차별이라 부른다. 성노예 제도가 있는 곳에는 사람인 남성과 노예인 암컷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의 출생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일이 남성인가 아니면 암컷인가를 감별하는 일이다. 암컷이면 그냥 죽여도 좋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마치 감별사의 손에 맡겨진 병아리의 가치로 전락한다. 박순근의 헌법 강의는 이를 부인하며, 사람은 그 암수나 출생지역 및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 없이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을 중심 테마로 하며, 이는 수업시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II. 자본주의에서는 누구나 몸을 판다.

자본을 통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예외없이 몸을 판다. 누구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군다나 여성의 노동은 모두 매춘으로 평가된다. 박순근은 그 점을 말하고 싶었으며, 이는 “몸을 팔아서라도 책은 사 봐야 된다”, “사람을 암수로 구분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성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 사회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매춘도 합법적 직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말로 수업 중 표현되고 있다. 박순근은 수업 중 “같이 옷을 벗어 봅시다”라고 거듭 제안한다.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옷이라는 강요된 도덕이나 관습은 성노예 제도를 유지시키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III.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

여성을 남성과는 다른 객체로 보고 언제나 다른 시각으로, 다른 언어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시각에 기초한 것으로 여성비하적인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단지 성적 기능이 다를 뿐, 나머지는 어느 것도 다르지 않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같은 취지의 말이라도 표현을 삼갈 부분이 있다고 그렇다. 모든 언어에는 특정한 사회가 주는 규범적 요소가 들어 있다. 그러나 강의실은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으로 100% 가까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다. 더군다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할 내용 중 어느 한 대목을 강의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 당부를 논하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에 불과하다. 그건 마치 신혼부부의 성생활을 비디오로 찍어 공개 장소에서 감상하는 것이나 같은 일이다. 여기에 이르면 이미 이성이나 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연세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스스로 답을 내려야 한다. 연세인들은 국가학의 고전인 마르크스의 자본론 및 엥겔스의 국가고사론을 “너 허벅지가 이뻐서 ...” 등의 천박한 여성비하 발언과 동일시했다. 두 가지를 묻는다. 첫째, 아직도 헌법학 강의에서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야 한다”는 명제를 성비하 발언으로 볼 것인가 둘째, 그렇다면 이 시간 연세의 지성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묻는다.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

박순근/ 연세대 법대 헌법담당 강사

2003.5.27(화)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실린 <누가 여성 해방의 걸림돌인가?>에 대한 총여학생회 입장글

누가 노예 제도를 재생산하는가?

2003년 5월 22일 총여학생회는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수업시간 교수에 의한 성폭력적, 성차별적 발언들에 대해서 이러한 발언들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날 한겨레신문에는 토론회 관련 기사가 실렸으며, 그 중 하나가 “돈이 없는 여학생들은 몸을 팔아서 책을 사서 공부하라”는 사례였습니다. 이후 26일 이 발언을 했던 '곽순근'씨는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라는 반박글을 교내 자보와 한겨레 지면을 통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1. 지금,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가

총여학생회는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3주 가량 수업시간에 경험한 성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한 사례를 접수 받았다. 이 사례 중에서 '곽순근'씨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토론회의 진행 과정에서 20여개의 사례 중 '곽순근'씨 사례가 특별히 더 두드러지거나, 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단지 '한겨레신문'에서 이 사례를 뽑아서 기사를 만들고, 제목을 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곽순근'씨는 이러한 선정적인 보도를 한 '한겨레'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을 문제제기한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문제 삼고 있다.

교수-학생의 관계는 '곽순근'씨가 주장하듯이 혹은 소망하듯이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 단지 '견해'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곽순근'씨가 문제의 발언을 몇 학기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그 동안 그 발언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졌던 학생들이 제대로 문제제기 하기 힘들었던 것, 그럼에도 계속 그 수업을 들어야했던 것. 이 것이 권력관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제야 문제제기를 하고 자신의 교육권을 되찾겠다는 학생에게 '곽순근'씨의 같은 어떠한 의미가 되고 있는가?

2. '차별'받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과 '차별'을 한다는 것은 다르다.

'곽순근'씨가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사회는 현재도 많은 사실상의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노예 제도는 여성 노예 제도, 대학 강사 노예 제도, 지방대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수나 시간 강사나 대학에서 자유롭게 수업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말. 서울 명문대나 지방대나 취업하기 힘들다는 말. 연봉 몇 억의 수입을 가진 사람이나 최저 생계비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현대인은 모두 소외되고 있다는 말. 이러한 말들이 기존의 불평등을 해소 시켜주는가? 대학 강사와 교수를 나누고, 명문대생과 지방대생을 나누고, 많이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것이 그리고 여성과 남성을 나누는 것이 노예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들을 나누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이들이 결코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들을 모두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 것이 바로 기득권이 피지배계급에게 투여하는 허위의식 그 이상이 아닌 것이다.

3.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다.

'책값이 없으면 남학생들은 막노동을 하고, 여학생들은 몸을 팔아라.'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곽순근'씨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곽순근'씨는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보는 것 자체가 여성 비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남학생은 막노동을 하고 여학생은 몸을 팔라고 이야기 하는가.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여학생들에게 몸을 팔아서 책을 사라는 발언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생각일까? 여성이라는 존재를 육체로 환원시키고, 언제라도 성을 팔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 않는가. 수업시간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여학생들에게 '몸을 팔으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성매매'에 대해 덧씌워진 억압적인 이미지를 해제하지는 못한다. 단지 '성구매자'가 될 수는 있겠으나, 강간과 질적 차이가 없는 성매매를 자신이 하게 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의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그리고 '여성=성매매 할 수 있는 자'라는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렇다면 노예 해방은 누가 했는가

'곽순근'씨는 노예해방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노예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노예해방은 누가 이룬 것인가? 노예들이 반대했던 해방을 노예를 거느리던 주인들의 선량한 마음으로 혹은 시혜적인 의미로 해방시켜주었는가? 노예해방은 자신들의 위치의 부담함을 자각한 노예들의 의식적인 행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성해방'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몸을 팔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부당하게 여기고 있는 여성이 존재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업시간에서까지 성적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때 가능한 것이다.

'곽순근'씨는 자신이 여성해방의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자신있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학생들에게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라고 묻는다. 답은 명확하다. '곽순근'씨 자신이 바로 여성해방의 걸림돌이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해마지 않는 '노예제도'를 기득권의 입장에서 재생산하고 있는 활발한 행위자이다

2003.5.27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2003.5.29(목) 한겨레신문 <왜냐면>에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에 대한 반론 실림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 궁금한가

한겨레 신문 5월 23일자의 대학 성폭력 언어 기사 중 백미(?)는 "몸을 팔면 된다"는 것이었다. 5월 27일자 "왜냐면"에 발언 당사자의 글이 실려 관심 있게 보았다. 발설자의 해명을 읽고 답답함이 더해지는 느낌이다. 문제된 발언은 정확히 "교재를 살 돈이 모자라면 남자애들은 막 노동판에 나가면 되고, 여자애들은 몸을 팔면 된다"이다.

몸을 판다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몸을 판다. (인신매매; 법으로 금지되고 흔하지 않음) ㉡몸의 일부를 떼어 판다. (장기 매매, 매혈; 불법이지만 가끔 일어남. 특히 병원 화장실에 권유 글이 많이 있음) ㉢몸의 특정 부위, 즉 성기 내지 성적 서비스를 판다. (불법이지만 주위에서 흔히 봄) ㉣몸의 능력, 즉 노동력을 판다. (합법이고 그러기를 권유받고 자발적으로 그림)

"여자애"들에게 권유된 몸 팔은 위의 어떤 것인가. 글 쓴 이가 실마리로 제공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몸을 판다. 누구도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그러므로 몸을 팔면 된다는 충고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더구나 여성의 노동은 모두 매춘으로 평가된다."("그러므로 유별난 매춘을 시사한 것도 아니다.")

㉡에 함축된 몸 팔은 ㉢인텐데, 그것은 맞는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자본이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며 그 값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데, 그들을 임노동자라 한다. 농민과 자영업자는 제 노동력 뜯어 먹고 산다. 물론 자본가도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본의 집적, 집중 과정에서 이윤이 줄어들고 (평균이윤율저하법칙), 중소기업은 몰락하여, 중국에는 무산대중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범주로서 자본가는 자본주의에서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으며 노동자보다 훨씬 많은 자유, 재량을 향유한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운 자는 없다고? 우리 모두 구조의 수인이라는 클리셰를 말하는 건가? 우리 모두 몸 팔아 산다는 것은 레토릭으로서는 통용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연구 결과"는 아닌 것 같다. 현실의 막대한 불평등을 호도한다는 점에서 불순해보이기까지 하다.

㉢의 몸 팔은 ㉢인데 이것은 어떤가. 젊고 예쁜 여자만 뽑아 시집가기 전까지 쓰다 버리는 허접한 노동력 취급이 다반사라는 것은 뉴스거리도 못된다. 일부 여성 노동이 노골적으로 성적 매력을 파는 것이거나 (온갖 향락업소, 각종 서비스업) 성적 매력을 끼워 판다. ("사무실의 꽃", 나레이터)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여성 노동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주입되어 당연시된 남성적 시선 탓인가? 자신이 노예인 줄도 모르는 노예, 자신이 매춘을 하는지도 모르는 매춘 여성?! 새벽부터 수영장으로, 영어학원으로, 강의실로 동분서주하며 청년실업의 난관을 뚫는 양질의 노동력으로 성장하려는 많은 여성들은 매춘 지망자인가? 예컨대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 받고 사장님 비위 맞추려 애쓰고, 손님 오면 커피 맛있게 타 댁시 있게 접대하는, 비서직에 요구되는 일을 성실히 해내려고 애쓰는 여비서는 매춘을 열심히 한 것인가? 비서 일의 서비스는 매춘부의 서비스와 같은가? 화면발에도 신경 쓰는 앵커우먼은 한복 입고 정육점 조명 아래 서 있는 매춘 여성과 다를 바 없나? 단지 비싸게 팔리고 혈값에 팔린다는 차이 이외에는 그들의 노동을 평가할 하등의 사회적, 도덕적, 심미적 기준이 없나? 모든 여성 노동이 매춘으로 평가된다는 소리는 폭력이다. 또다시 레토릭으로서는 무시하게나마 일말의 비판적 함축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연 매춘을 별 도덕적 저항 없이 당연시("매춘도 합법적 직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하고 나아가 학생에게 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존방식인양 하는 논리로 연결될 때, 레토릭으로 뭉뚱그리려는 것 안에 얼마나 가증스런 남성중심적 성 관념이 깔려 있는지 드러난다.

글에서 제시된 두 옹호 논리 ㉡㉢은 모두 틀린 말이다. 혹 매춘을 권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악의적인 오독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성-중립적으로 말해, 학생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돈 많은 부모가 없어 교재 살 돈이 없으면 모두 그러듯 몸을 팔아 돈 벌면 되고, 파는 상품의 내용은 각자 "개인이 결정"하도록! 이었다면, (헌법 담당 대학 강사의 몸 팔은 호스트 바 '선수'의 몸 팔과 같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또 다시 할 말이 있다. 왜 남자애에게는 몸 파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여자애에게는 그 친절을 베풀지 않는가. 판매는 선생으로서 가장 나쁜 일인데.

페미니즘적 지식을 활용하여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성폭력, 성희롱을 감행했다는 모모 인사의 경우가 자주 생각나는 것은 웬 일일까. 여성해방이라. 우리가 꿈꾸는 여성 "해방"은 "노예인 암컷"을 시장으로 "해방"시켜 몸 파는 "존엄한" 인간으로, (성을) 파는 자와 사는 자의 "평등" 관계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성 해방의 걸림돌인가? 그것이 궁극인가? 열심히 쉼없이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학생들을 화나게 만들어 그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공부해야 할 시간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 지적하느라 허비하게 만든 "헌법담당 강사"이다. 여학생들이 좌절했을 것 같지는 않은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김미영 / 홍익대 성과 사회 담당 강사

* * *

여성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먼저 5월27일치 '왜냐면'의 확산근저 글을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몸을 파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것(인간의 노동과 몸을 포함하여)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과 몸은 상품이 될 수 없다. 인간의 몸이 상품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며 인간의 노동 또한 상품의 될 수 없음은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헌법학 강사인 필자는 헌법 강의를 통해 성노예제와 성차별을 부인하고 사람은 그 암수나 출생지역 및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 없이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을 중시태도로 하여 수업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인간의 몸과 노동을 사고 파는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인간의 몸과 노동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우리의 헌법정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헌법 전문가인 그에게 묻고 싶다.

꼭써는 인간의 몸과 노동을 사고 파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의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인간의 노동은 일반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꼭써는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엥겔스의 국가 고사론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발언이 성비하적 발언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또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진정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노동의 소외의 극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본주의하에서는 당연히 몸을 파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역사는 노동이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음을 필자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위와 같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필자가 오히려 이를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필자의 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또한 궤씨는 매춘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남녀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도 일응 맞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들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매춘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몸을 파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특히 여성의 매춘을 불법시 하여 방지하는 것이 그것을 합법화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오랜 고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즉 매춘여성들의 복지와 보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나 궤씨의 글에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매춘여성에 대한 고민이나 애정을 읽을 수 없다.

그리고 궤씨는 남성과 여성이 단지 성적 기능이 다를 뿐, 나머지는 어느 것도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도 또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의 글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성적 기능이 다를 뿐 다른 것은 모두 다르므로 모든 부분에서 남녀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즉 일도 똑같이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군대로 가야한다. 이런 주장으로 들리는 것은 나만의 오해이고 과민반응일까 헌법에서도 여성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필자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자가 평등한 것과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것인데 그의 글에서는 이것을 느낄 수 없다.

궤씨는 자신의 발언이 성비하 발언인지와 강의 전체내용 중 일부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비이성적임을 묻고 있다. 그의 발언이 여성에게는 성비하 발언이 될 수 있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비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그의 강의 전체를 듣지 않은 내가 그의 의도를 오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이석진 강남구 역삼동, 공인노무사

2003.5.29(목) 연세대 강사 궤순근씨의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연세대 강사 궤순근 씨의 성폭력적 발언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지난 5월22일 총여학생회에서는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에 의해 진행되는 성폭력적, 성차별적인 발언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러한 발언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위해 '교수 성폭력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논의되었던 사례 중 하나인 궤순근 강사의 사례가, 토론회를 보기도하였던 23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리고 이후 26일, 궤순근 씨가 같은 신문에 반론문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이 사건이 학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보다 바람직한 사건해결을 바라고 건강한 토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장을 표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글에서의 호칭은 '궤순근 씨'로 하겠습니다. 강사로 제직하시는 분이고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지만,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를 규정짓는 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2002년 2학기 법과대학 헌법(2) 첫 시간에, 수업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남자애들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하면 되고, 여자애들은 몸을 팔면 된다'는 말을 하였다.

한겨레 지문에 실렸던 궤순근 씨의 반론문 [누가 여성해방의 걸림돌인가]에서 밝혔던 그의 입장은 당시 강의 중 그러한 발언을 하였던 이유와 맥락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의 해명은 그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당시 수강했던 학생들 중 그 발언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 문제를 제기하기로 쉽지 않은 결심을 했던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대신, 자신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되묻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궤순근 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몸을 팔고 그러한 행위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노예제도를 유지시키는 강요된 도덕, 관습에 저항하기 위해서 수업 중 '같이 옷을 벗어봅시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그것을 듣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처해있는 현실을 고찰함 없이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곧 평등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여성에게 억압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여성 개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변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구나 그는 스스로의 주장과는 다르게 '사람을 암수로 구분'하고 있다. 똑같이 '몸을 팔아서라도 책을 사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면서 왜 남성에게는 '막노동'을, 여성에게는 '몸을 파는 행위'를 예로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궤순근씨가 그의 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설사 그것이 강의맥락 상 꼭 필요한 발언이었다 해도 어떤 강의 대상자에게 불쾌함을 일으킨다면 그는 그들의 반응을 존중해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수차례의 학생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간의 문제제기들을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의 트집잡기' 정도로 생각해왔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가지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분명 피해를 받은 사람이 존재하는 성폭력적인 사건이라는 점이고 여기에 대해 발언 당사자의 해명과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몸팔아서라도 책을 사와라' 라는 당시의 발언을 성비하 발언으로 볼 것인지/아닌지의 문제는 철저히 그 수업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발언자가 결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발언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납득할 수 없는 연세인에게 '연세의 지성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되묻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회피이다.

두 번째는, 대학 강의실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것이다.

강의실에서 교수의 '100% 가까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느 한 성이 배제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강의를 이끌어가고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교수이지만, 그것이 곧 학생들은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이 강의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고 교수도 이를 강의에 반영해나가는 모습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학 내에서 강의 중 일어나는 이러한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은 연세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하다. 올 한 해에만 수차례 그 사례가 접수되었고 그것은 비단 하나의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러나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바꾸어나가려는 시도는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학 내에서 양성 평등한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필요한, 끊임없는 토론과 자성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2003.5.29

연세대학교 총학생회